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llection Development of Local Collection in the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y

김보일 (Bo-il Kim)**

초 록

이 연구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장서개발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 정체성 유지와 지역문화의 후대 전승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자료 장서개발 관련 법적 고찰, 지역자료의 장서개발 현황 및 광역대표도서관 담당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책적 방안으로는 지역자료의 장서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및 납본 제도 개선, Open Access(OA) 리포지터리 구축을 통한 지역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및 온라인 접근성 강화, 지역자료의 범위와 유형의 다양성 확대, 지역자료 장서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배치, 지역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policy measures for the collection development of local collections within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ie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sustaining regional identity and transmitting local culture to future generations amid declining populations and the potential dissolution of regional communities. To this end, a legal review of collection development for regional materials,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collection development for regional materials, and a survey of perceptions among officials at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ies were conducted. The proposed policy measures include reinforcing the legal framework for collection development of local collections and refining the deposit system, establishing an open access (OA) repository to strengthen digital archiving and online accessibility for local collections, broadening the scope and diversity of local collection types, appointing specialists to support collection development and services related to local collections, and creating a cooperative framework with local communities to enhance the acquisition of local collections. By implementing these measures,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ies can play a pivotal role in preserving and passing down the distinct history and culture of their regions to future generations, while also enhancing public services for the local community.

키워드: 광역대표도서관, 지역자료, 장서개발,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y, local collection, collection development, open access, repository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한남대학교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지역 컨소시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boil1979@hnu.kr)

- 논문접수일자: 2024년 11월 5일 ■ 최초심사일자: 2024년 12월 6일 ■ 게재확정일자: 2024년 12월 6일
- 정보관리학회지, 41(4), 1-22, 2024.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4.001>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최근 통계청의 보도자료(2023.12.14.) 「장래 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2022년 출산율이 0.7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 전반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는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수립하여 통보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서와 같이 지역공동체의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시설 간의 연대를 통한 협력이 요구된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즉, 공공도서관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소멸에 따른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역문화를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지역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존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신규 건립되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학'을 특성화하여 지적유산으로서 축적성, 체계성, 가치성을 지니는 지역에 관한 자료를 도서관 장서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자료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등을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자료는 그 범위가 넓고 유형이 다양하며, 기존의 향토자료 또는 지역공동체 기록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로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지역자료와 중첩되고 있으며, 자료수집 정책으로 명문화되지 않고 있거나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체계적인 지역자료에 대한 장서개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서를 수집하여 보존 및 관리함으로써 해당 시·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지역자료 장서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자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규정과 장서로서 수집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자료 장서개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곧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찾고 보존하는 일이며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근본이 된다(김덕목, 2016, 301). 이에 국립중앙도서관과 17개 광역대표도서관은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향토자료 수집을 위한 협의체로 '지역자료수집협의회'를 발족(2024년 4월 26일)하여 운영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2024).

따라서 이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으로 지역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장서개발을 통해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지역자료 장서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책 및 자료수집 지침 등

을 고찰하고 국내외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서비스 사례를 조사·분석한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광역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역자료의 장서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장서개발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도서관 장서로서 지역자료

2.1 지역자료의 개념

지역자료(Local Collection)는 일반적으로 도서관이 위치한 특정 지역에 관한 도서, 지도, 삽화 및 기타 자료 일체를 의하며, 2020년(2019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시 통계 항목으로 '향토자료'로 사용되다가 2021년(2020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시부터 '지역자료'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2010)의 『(개정판)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 '향토자료(Local Collection)'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지역자료는 시대변화에 따라 향토자료에서 동일한 의미를 두고 용어만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자료는 그 주제와 유형이 다양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소유되고 산재되어 있어서, 자료의 수집과 장서 구축에 어려움이 많으며, 도서관 현장의 혼선도 적지 않다(장덕현, 2020, 333).

최근에는 광역대표도서관의 특성화 주제로서 특정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지역학'을 선정하면서, 특성화 자

료로서 지역자료의 의미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학을 주제로 지역자료를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도서관 '서울자료실', 부산도서관 '부산애(愛)뜰', 울산도서관 '울산지역자료실', 충남도서관 '특성화 자료실', 경남대표도서관 '경남자료실', 한라도서관 '제주 문헌실' 등의 지역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이 소장 중인 지역자료(향토자료),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설 및 기관에서 발행한 단행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번역서 등, 해당 지역에 관한 인문·역사·지리 등에 관한 자료로서 간행물, 유물, 유적 등을 포함하며, 유·무형적 자료가 포함된다. 따라서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지역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단, 지역공동체 기록으로서 단행본 형태의 인쇄 자료는 지역자료에 포함하여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이관하여 수집·관리·열람·서비스되도록 하되 이외의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기록관 또는 기록원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역자료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서로서 구입, 기증, 협력을 통해 수집하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를 위해 지역자료의 DB 구축을 통해 지역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광역대표도서관의 서지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 검색 및 소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집된 지역자료 중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원문 자료를 대상으로 광역대표도서관 Open Access Korea(OAK) 리포지터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자료의 원문DB를 공유하여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광역대표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오픈 액세스로 제공하는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함으로서 개인이나 연구자를 중심으로 지역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 238-239). 광역대표도서관의 OAK 리포지터리 운영 사례로 서울도서관 지식저장소는 2013년 서울시 지식정보의 수집, 보존, 공유 및 확산을 통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지식콘텐츠 통합서비스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발간 간행물(학술용역, 기술용역 등) 원문(Full-text)의 아카이빙 서비스를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서울시정자료의 표준화된 오픈엑세스 창구로 제공되고 있다(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 238).

2.2 지역자료 장서개발 관련 법적 고찰

2.2.1 법률 및 자치법규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 근거는 2006년 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관할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설립하게 되면서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규정한 업무와 납본 관련 사항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이에 『도서관법』(법률 제19592호) 제26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에서 제2호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제5호에서는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광역대표도서관은 시·도 단위의 지역자료를 포함한 도서

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업무를 하는 동시에 지역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해야 한다. 또한, 광역대표도서관은 납본을 통해 지역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제28조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 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2부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자치법규를 통해서도 『도서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지역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2024년 8월 22일 기준)을 통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도서관 및 독서진흥’ 관련 자치법규 또는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12곳(70.6%)은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지역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5곳(29.4%)은 자치법규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자치법규를 통해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지역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표적으로 서울은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0조를 통해 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서울도서관이 도서관 자료를 제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도서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소속 공사 및 공단, 서울특별시의 출자·출연 법인,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및 법인·개인·단체 등으로 규정하

고 있다. 광역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는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료,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에 위한 특수자료,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충남은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장 충청남도 대표도서관 제4조 업무로 충청·백제 관련 특성화 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을 규정하여 지역자료의 내용적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듯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의 법적 근거는 『도서관법』에 따르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치법규를 통해 일부 광역대표도서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역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2.2.2 자료수집 규정 및 장서개발 정책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과 관련한 근거는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26일 까지 전화 및 이메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수집한 도서관별 자료수집 및 관리 규정과 장서개발 관련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먼저,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한 지역자료 수집의 근거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8곳(47.1%)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다만, 자료수집 및 관리 규정과 장서개발 관련 정책 모두를 통해서 지역자료 수집과 관련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통해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지역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표적으로 부산은 『부산도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장서구성 기본 방침을 통해 부산도서관은 ‘향토, 귀중자료 및 행정간행물 등 모든 유형의 부산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자료

〈표 1〉 광역자치단체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내 지역자료 수집 근거 현황

지역	자치법규	지역	자치법규
서울	○	강원	×
부산	○	충북	○
대구	○	충남	○
인천	○	전북	×
광주	×	전남	○
대전	×	경북	○
울산	○	경남	○
세종	○	제주	○
경기	×	계	12곳(70.6%)

인 부산 관련 자료의 구체적인 유형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은 「전라남도립도서관 운영 규정」 제3장 자료 이용 제2절 자료 수집 및 관리 제29조 장서구성 기본방침을 통해 ‘지역자료 보존 역할 수행을 위해 폐기보다는 보존을 우선’한다 라고 규정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에 대한 보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 서울, 울산 등과 함께 세종은 「세종시립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세종시립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자료를 최우선 입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의 근거를 장서개발 정책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나 확인 가능한 곳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4곳(23.5%) 뿐이다. 장서개발 정책을 통해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지역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표적으로 부산은 「부산도서관 장서개발 지침」 자료 선정 지침으로 구입 세부 지침으로 부산자료 구입에 대한 세부 지침으로 ‘매체, 생산주체(언어), 주제, 대중성을 불문하고 최대한 구입, 부산시와 관련된 과거 및 현재의 지도자

료(지도, 지구의 등) 적극 수집’을 통해 지역자료에 대한 포괄적·적극적 구입을 통한 수집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료수집 규정 및 장서개발 정책을 통한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과 관련 근거를 통해 볼 때 지역자료의 범위와 유형 등으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표 2〉 참조).

2.3 선행연구

지역자료 장서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특성화 장서’로서 연구되고 있으며, 대상으로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장서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외 관련 선행연구로 광역대표도서관을 포함하는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장서로서의 연구와 지역자료를 활용한 공공도서관의 지역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연구가 있다.

이에 지역자료에 대한 광역대표도서관의 특성화 장서로서의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노영희 외(2017), 곽승진 외(2021), 윤희운, 오선경(2021), 박성우(2023) 등의 연구가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특성화 장

〈표 2〉 광역자치단체 자료수집 규정 및 장서개발 정책 내 지역자료 수집 근거 현황

지역	규정	정책	지역	규정	정책
서울	○	○	강원	×	×
부산	○	○	충북	×	×
대구	×	×	충남	○	×
인천	○	×	전북	×	×
광주	×	○	전남	○	×
대전	×	○	경북	×	×
울산	○	×	경남	○	×
세종	○	×	제주	×	×
경기	×	×	계	8곳(52.9%)	4곳(23.5%)

서로서 지역학을 주제로 특성화를 제안하고 있으며(노영희 외, 2017; 윤희운, 오선경, 2021), 장서관향 방향으로 지역자료의 수집을 제안하였다(곽승진 외, 2021). 최근 연구(박성우, 2023)에서는 지역자료에 해당하는 향토자료와 시정자료를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이관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사서, 이용자, 도서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외 지역자료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장서관으로서의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이 지역과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기억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지역특성화자료(향토자료)의 디지털화 방안을 제안하였다(장덕현, 2020). 다음으로 지역자료를 활용한 지역정보서비스 관련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김보일 외(2015)와 이은주(2018)의 연구가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 공공도서관 지역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정보 이용 접근점 다양화, 지역정보 콘텐츠 개발, 지역정보서비스 협의체 구성, 지역정보서비스 홍보를 제안(김보일 외, 2015)하였으며, 지역대표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 중심으로 지역정보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전전략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정보의 지속적인 갱신작업, 제공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안하였다(이은주, 2018).

하지만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지역자료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 내리거나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광역대표도서관(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장서관으로서 지역자료를 제안하고 있으나 분명한 근거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으로 지역자료의 장서관발 필요성을 제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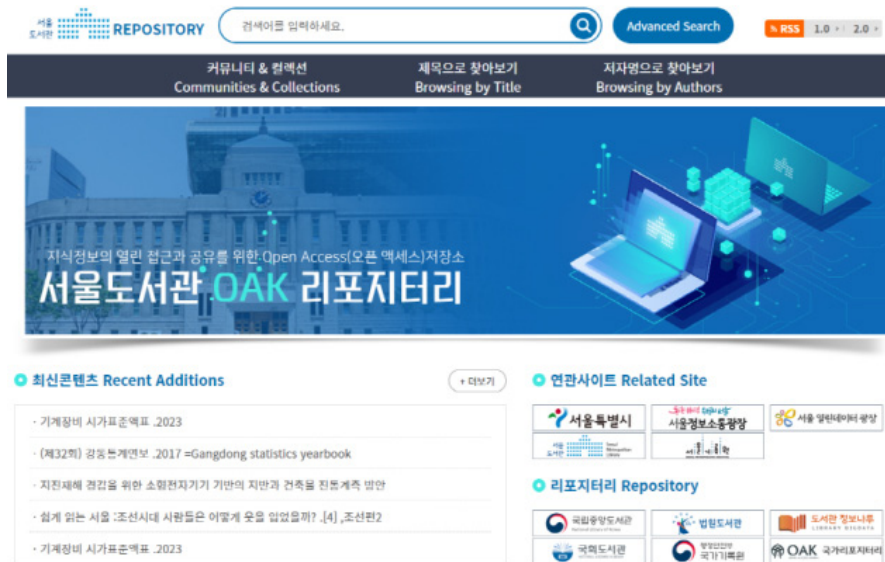
3.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장서관발 사례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장서관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사례로는 광역대표도서관 중 지역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의 측면에서 주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곳으로 리포지터리 방식 지역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도서관, 지역자료 장서관발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를 하고 있는 부산도서관, 지역자료 수집을 위해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하고 있는 한밭도서관을 선정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지역자료 장서관발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미시간 도서관과 밴쿠버 공공도서관 선정하였다.

3.1 국내 사례

3.1.1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은 2012년 개관 이래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발간물 및 학술지, 정기간행물을 소장하고 있는 주제 전문 자료실로 '서울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유자료로는 서울시에서 출판한 발간물,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 출판한 도서, 서울 혹은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일반출판물, 각종 학술지 및 서울시 발간 간행물, 소규모 독립출판사에서 발간한 서울 관



〈그림 1〉 서울도서관 OAK 리포지터리 누리집

런 서적 등이 있다. 서울자료실 내에는 일반 서가 이외 서울시 정책 관련 도서, 간행물, 백서 등을 전시하는 ‘북 큐레이션 서가’, 최근 입수된 서울시 발간 간행물, 정부간행물, 서울시보 등을 전시하는 ‘신간 도서 서가’, 서울의 유래 및 역사를 소개하고 법규·사례집 등 고서 전시를 위한 ‘유리 서가’,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서울자료실 소장도서를 전시하는 ‘특화 주제 서가’ 등 다양한 특별서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 서울도서관은 서울시 발간물 중 일부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서울도서관은 국내 광역대표도서관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 발간자료를 공유하고자 OAK(Open Access Korea) 리포지터리(저장소) 운영을 통해 서울자료에 대해 누구든지 어디서든 자유롭게 원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서울도서관 OAK 리포지터리 누리집, 2024).

3.1.2 부산도서관

부산도서관은 부산광역시 대표도서관으로서 2020년 개관하면서 부산 관련 자료 및 행정자료를 비치·전시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부산학 자료실로 ‘부산애(愛)뜰’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부산애(愛)뜰’에서는 아카이빙된 부산 관련 문학과 예술, 역사, 행정자료 등과 역대 부산 국제영화제(BIFF) 포스터 등 다양한 부산 관련 지역자료를 서비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도서관은 지역자료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해 담당 인력으로 구입 담당자, 기증담당자, 부산자료실 ‘부산애(愛)뜰’ 담당자, 기록연구사 등 4명을 배치하고 있다. 특히, 부산도서관은 전문인력으로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부산학 아카이브 구축·운영, 부산지역 고유 지식자원 수집·발굴 및 아카이빙, 지역자료 보존에 관한 사항, 보존서고 및 귀중서고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지역자료 장서개발을 전략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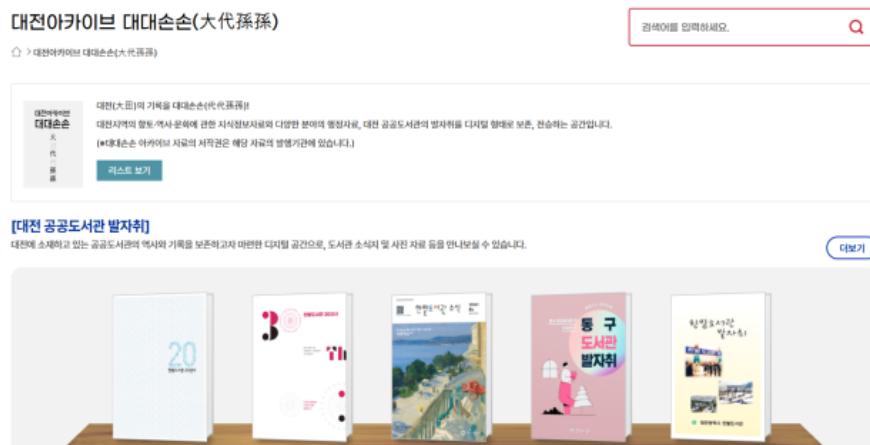
〈그림 2〉 부산도서관 ‘부산애(愛)뜰’ 내부 전경

로 추진하고 있다(부산도서관 누리집, 2024).

3.1.3 한밭도서관

한밭도서관은 1989년 개관 이래 2007년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대전에 관한 다양한 지역자료를 수집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2024년 5월 부터는 대전 관련 지역자료들을 수집하고 디지털 자료 형태로 보존함으로써 대전의 소중한 기록

들을 후세에 전승하고자 대전아카이브 ‘대대손손(大代孫孫)’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역자료로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관련 기록물 및 소식지 등 도서관 자료 ‘대전 공공도서관 발자취’, 대전시와 자치구의 정책·경제 분야 백서, 각종 연보, 소식지 등 대전 지역에 관련된 다양한 간행물 ‘대전백서’, 대전 인구·지리·경제 등 지역 현황 및 정책 관련 자료 ‘대전 행정자료’, 대전의 역사와 전통, 문화



〈그림 3〉 한밭도서관 대전아카이브 ‘대대손손(大代孫孫)’ 누리집

재 등과 관련하여 발행된 각종 향토자료 ‘대전 향토·역사·문화자료’ 등을 디지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밭도서관은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 대전 관련 지역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하여 DB로 구축했다(한밭도서관 누리집, 2024).

3.2 국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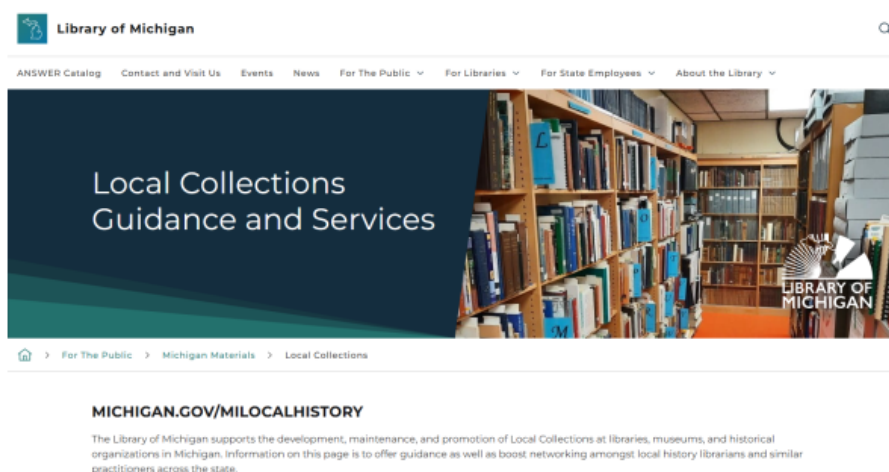
3.2.1 미시간 도서관(Library of Michigan)

미시간 도서관은 지역자료 장서관리 및 유지 관리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이야기를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역자료를 수집, 전시를 통해 개별 지역사회의 유산을 보존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자료는 공공성과 접근하기 쉬운 환경에서 지역 사회와 관련해 권위 있는 정보의 중심 자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시간의 도서관, 박물관 및 역사 단체의 지역자료 장서관리, 유지 관리 및 홍보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 지역자료 상담, 지역 역사에

관심 있는 사서 및 실무자를 위한 온라인 포럼 ‘MiLocalHistory’ 운영, 지역 역사 자료 출판 가이드, 디지털화, 미시간 관련 자료 이용을 위한 미시간주 도서관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시간 도서관은 지역자료 장서관리로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Library of Michigan Homepage, 2024).

3.2.2 밴쿠버 공공도서관(Vancouver Public Library)

밴쿠버 공공도서관은 지역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지역 역사 자료를 실물 자료와 함께 디지털화된 자료를 온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자료 중에는 40,000 개 이상의 디지털화된 이미지가 포함된 3가지 시그니처 컬렉션으로 역사 사진, 밴쿠버 빌딩 기록,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덱스 등이 있다. 이외 캐나다 지리 온라인 사전, 캐나다 역사 신문, 역사의 시점 등의 기타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밴쿠버 공공도서관은 지역자료가 과거의 태도



〈그림 4〉 미시간 도서관의 ‘지역자료’ 누리집



〈그림 5〉 밴쿠버 공공도서관의 ‘지역 역사 자료’ 누리집

와 관점에 대한 역사적 증거로 기능하기 위해 변경하지 않는 언어 및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자료가 이용자로부터 포용적이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여 적절한 언어나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지역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적으로 목록 업데이트,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있다(Vancouver Public Library Homepage, 2024).

3.3 시사점

위의 국·내외 사례를 통해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자료의 보존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자료의 체계적 아카이빙이 필요하다. 서울도서관, 부산도서관, 한밭도서관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지역의 도서관들은 특정 지역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아카이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지역자료의 디지털화 및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밭도서관의 ‘대대손손’ 온라인 서비스나 밴쿠버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처럼, 지역자료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접근성 제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지역자료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지역자료 장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배치가 중요하다. 부산도서관은 기록연구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아카이빙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는 지역자료의 보존과 관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넷째, 지역자료 이용을 위하여 포용적이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밴쿠버 공공도서관 사례에서와 같이 과거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담고 있는 지역자료를 포용적이고 존중받는 언어로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부응하는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다섯째, 지역자료 장서관발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연계한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미시간 도서관 사례처럼, 지역자료를 개발하고 유지 관리 및 홍보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는 지역자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장서관발 현황 및 진단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역자료의 장서관발 현황을 살펴보고 실태를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4년 10월 10일(목)부터 동월 25일(금) 까지이며, 조사는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지정 운영 포함)의 지역자료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지역자료 장서관발에 관한 조사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단, 경기도의 경우 선경도서관이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 현황, 지역자료 서비스, 담당자 인식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회신 결과 16개 광역대표도서관 중 1곳을 제외하고 15개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응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장서관발 현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실태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결과 광역대표도서관 지역자료 담당자의 성별은 여성이 12명(80.0%)으로 남성 3명(20.0%) 보다 4배 이상 월등히 많으며, 응답자 모두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를 보면 담당사서(타업무 겸직)가 11명(73.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문인력(상근)이 3명(20.0%)이고 전담사서(단일업무)가 1명(6.7%)으로 나타나 지역자료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료 담당 업무 기간은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이 7명(46.7%)로 가장 많으며, 6개월 미만인 3명(20.0%)로 전체 담당 업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응답자가 10명으로 66.7%에 달하고 있다. 이외 3년 이상 3명(20.0%), 1년 이상 ~ 2년 미만이 2명(13.3%)으로 나타났다.

4.1 지역자료 현황

조사에 응답한 15개 광역대표도서관은 모두 지역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자료의 수집의 근거(중복응답)로는 법률적 근거인 '도서관법'이 13개관(8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8개관(53.3%), '도서관 관련 자치 법규'·'장서관발정책'이 각각 7개관(46.7%), '기타' 1개관(6.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지역자료 수집의 주요 근거로 「도서관법」과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어 법적 근거와 규정이 지역자료 수집의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에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자료의 수집 유형(중복 응답)은 '단행본'이 15개관(100.0%)으로 모든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으며, 다음 순으로 '비도서'·'지역 공동체 기록물'이 각각 4개관(26.7%), '학술자료(보고서 포함)' 3개관(20.0%), '전자도서'·'사진' 각각 2개관(13.3%), '지도'·'기타'가 각각 1개관(6.7%)로 나타났다. 이외 '행정박물'과 '구술자료'는 지역자료로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역자료(미응답 3개관 제외)는 70,443점(평균 5,870점)으로 응답 도서관 도서관자료(인쇄자료) 대비 1.3%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료의 주제별 수집 현황은 '역사'가 28,253점(평균 2,354점, 40.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순으로 '문학'이 16,713점(평균 1,393점, 23.7%), '사회과학' 14,235점(평균 1,186점, 20.2%) 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볼 때 광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 단행본 중심의 지역자료 수집을 하고 있으며, 지역자료로서 지역공동체의 기록물 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역자료의 주제별 특성이 역사, 문학, 사회과학 중심이며, 특히 문학의 경우 지역 출신 문학 작가들의 작품 등을 포함하여 수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 활용한 지역자료 현황은 광역대표도서관 지역자료 담당자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개별 도서관 누리집을 통한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지

역자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지역자료의 장서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표 3> 참조).

한편, 광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자료를 납본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관 등으로부터 발간자료를 제출받는지를 조사한 결과 15개 광역대표도서관 모두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곳(중복응답)으로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교육청 포함)'은 15개관(100.0%) 모두 제출받고 있으며, 다음 순으로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사 및공단' 11개(73.3%),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자·출연 법인' 9개관(60.0%),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기관 및 법인·개인·단체' 7개관(46.7%), '기타' 1개관(6.7%)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지역 출판사로부터 지역자료를 제출받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광역대표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지역자료를 납본을 받고 있지만, 상업적 출판물과 비정기적인 지역자료에 대해서는 납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더불어 지역출판사와의 협력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표 4> 참조).

〈표 3〉 광역대표도서관 주제별 지역자료 수집 현황

(단위: 점, %)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전체
현황	1,461	596	545	14,235	496	3,414	4,513	217	16,713	28,253	70,443
비율	2.1	0.8	0.8	20.2	0.7	4.8	6.4	0.3	23.7	40.1	100.0
평균	122	50	45	1,186	41	285	376	18	1,393	2,354	5,870

〈표 4〉 광역대표도서관 지역자료 납본 기관(중복응답)

(단위: 관, %)

구분	행정기관 (교육청 포함)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 법인	예산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기관 및 법인·개인·단체	기타
현황	15	11	9	7	1
비율	100.0	73.3	60.0	46.7	6.7

4.2 지역자료 서비스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서비스 유형을 조사한 결과 15개관(100.0%) 모두 ‘오프라인 자료 이용 지원 (대출/반납, 열람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 ‘전시 및 큐레이션’이 7개관(46.7%), ‘도서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자료 이용 지원(리포지터리 포함)’ 6개관(40.0%), ‘독서·문화프로그램 연계 제공’·‘지역 연구를 위한 개인 및 기관 지원’이 각각 2개관(13.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지역자료 생산·제작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자료 서비스를 통한 지역자료 제공 형태(중복응답)는 ‘서가 또는 코너 운영’이 10개관(6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순으로 ‘별도의 자료실 운영’ 5개관(33.3%),

‘전시 및 큐레이션’ 4개관(26.7%), ‘기타’ 1개관(6.7%)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지역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대부분의 광역대표도서관은 오프라인 대출/반납과 열람 같은 기본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시 및 큐레이션과 온라인 자료 지원은 일부 도서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오프라인 서비스에서 디지털 및 큐레이션 서비스로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표 5〉 참조).

한편 「제4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관련 서비스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7개 서비스 계획에 대하여 64.8%가 실행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5.7%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영역별에서도 ‘지역자료 수집

〈표 5〉 광역대표도서관 지역자료 서비스 유형(중복응답)

(단위: 관, %)

구분	현황	비율
오프라인 자료 이용 지원(대출/반납, 열람 등)	15	100.0
전시 및 큐레이션	7	46.7
도서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자료 이용 지원(리포지터리 포함)	6	40.0
독서·문화프로그램 연계 제공	2	13.3
지역 연구를 위한 개인 및 기관 지원	2	13.3
지역자료 생산·제작 지원	0	0.0
기타	0	0.0

보존'은 60.0%,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는 68.3%가 서비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서비스 계획별로 살펴보면 '지역자료 발행·제작·유통 기관과의 협업 추진'·'자치단체별 온라인자료 수집 및 서비스 지침 마련'은 각각 12개관(80.0%)이 서비스 계획이 없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자치단체별 지역자료 디지털 아카이빙 체계 구축'은 8개관(53.8%)으로 서비스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광역대표도서관은 「제4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지역자료 관련 서비스 계획이 없는 것

로 분석되며, 서비스 계획별로 시행 여부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자료 수집 서비스 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자료 수집을 위한 지침 및 계획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보면 광역대표도서관의 대다수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지역자료 관련 서비스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자료 발행·유통 기관과의 협업 및 온라인 자료 수집 서비스 계획이 부족한 실정으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표 6〉 참조).

〈표 6〉 광역대표도서관의 「제4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관련 지역자료 서비스 계획 현황

(단위: 관, %)

구분	서비스 계획	계획 없음	추진 계획 있음	시행 중에 있음
지역자료 수집 보존	광역-기초 간 협력을 통한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체계 구축	8	0	7
		53.3	0.0	46.7
	광역대표도서관에 지역자료 납본·보존센터 설치·운영	7	1	7
		46.7	6.7	46.7
	지역자료 발행·제작·유통 기관과의 협업 추진	12	1	2
		80.0	6.7	13.3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소계	27	2	16
		60.0	4.4	35.6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자료 디지털 보존전략 기본계획 수립	10	3	2
		66.7	20.0	13.3
	자치단체별 온라인자료 수집 및 서비스 지침 마련	12	1	2
		80.0	6.7	13.3
전체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서비스 현황 조사	14	1	0
		63.3	6.7	0.0
	자치단체별 지역자료 디지털 아카이빙 체계 구축	5	2	8
		33.3	13.3	53.3
	소계	41	7	11
		68.3	11.7	18.3
	-	68	9	27
		64.8	8.6	25.7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1순위는 지역자료의 '수집확충'이 9개관(60.0%)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 순으로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 3개관(20.0%), '특화프로그램 운영' 2개관(13.3%), '연구 및 활용을 위한 대여' 1개관(6.7%)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전시 및 큐레이션'·'유관 기관 협력'이 각각 4개관(26.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순으로 '연구 및 활용을 위한 대여' 3개관(20.0%),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홍보강화'가 각각 2개관(13.3%)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서비스 제고 방안으로는 '수집확충'을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다음 순으로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 '특화프로그램 운영'순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자료의 수집확충과 동시에 지역자료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향후 지역

자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표 7〉 참조).

4.3 담당자 인식도 조사

광역대표도서관 지역자료 담당자 대상으로 지역자료 수집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8명(53.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매우 필요하다'가 4명(26.7%), '보통'이 3명(20.0%)으로 나타났다. 즉,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12명(80.0%)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자료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9명(60.0%)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매우 중요하다'·'보통'이 각각 3명(20.0%)로 나타나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지역자료 수집의 '중요성'이 12명(80.0%)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광역대표도서관 지역자료 담당자들이 지역자료 수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표 7〉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서비스 제고 방안

구분	1순위		2순위		응답 백분율	종합점수	
	응답 도서관	비율	응답 도서관	비율		점수	순위
수집확충	9	60.0	0	0.0	30.0	18	1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	3	20.0	2	13.3	16.7	8	2
연구 및 활용을 위한 대여	1	6.7	3	20.0	13.3	5	5
특화프로그램 운영	2	13.3	0	0.0	6.7	4	6
전시 및 큐레이션	0	0.0	4	26.7	13.3	4	6
유관 기관 협력	0	0.0	4	26.7	13.3	4	6
홍보강화	0	0.0	2	13.3	6.7	2	7
목록 제작 배포	0	0.0	0	0.0	0.0	0	9
기타	0	0.0	0	0.0	0.0	0	9
소계	15	100.0	15	100.0	100.0	-	-

※ 종합점수 산출: 1순위 응답수 2배가중 + 2순위 응답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 방법(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14명(93.3%)이 「도서관법」에 따른 법적인 방법인 ‘납본(자료제출)’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기증’ 13명(86.7%), ‘구입’ 10명(66.7%), ‘제작’ 2명(13.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자료의 수집 대상으로는 14명(93.3%)이 ‘지역학 자료’·‘역사자료’가 가장 수집해야 할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향토자료’ 13명(86.7%), ‘지역 작가 작품’ 10명(66.7%),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소장 지역자료’ 4명(26.7%), ‘출향인사 자료’ 2명(13.3%), ‘생활정보’ 1명(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지역자료 수집 방법으로 ‘납본(자료제출)’이 가장 필요하나, 실제로는 납본 요청에 대한 협조 부족이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납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표 8〉 참조).

한편, 지역자료 제공을 위한 전담 인력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9명(6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매우 필요하다’·‘보통’이 각각 3명(20.0%)으로 나타났다. 즉,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12명(80.0%)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지역자료 제공을 위한 전담 인력의 운영 형태 적

합성을 조사한 결과 ‘전담사서(단일업무)’가 9명(60.0%)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담당사서(타업무 겸직)’ 5명(33.3%), ‘전문인력(상근)’ 1명(6.7%)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지역자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었으며, 단일 업무를 맡는 전담사서가 가장 적합한 운영 형태로 평가되었다. 이는 지역자료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사서 배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역대표도서관에서의 지역자료 서비스에 대한 자유 의견을 분석한 결과 지역자료 서비스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사서가 필요하며, 현재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자료 수집에 있어 대부분 납본에 의존하고 있지만, 납본 요청에 협조가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자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인력 증원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4.4 시사점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장서개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함께 지역자료 장서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8〉 광역대표도서관 지역자료 수집 대상(중복응답)

구분	지역학 자료	향토 자료	역사 자료	생활 정보	출향 인사 자료	지역 작가 작품	해당 기초지방 자치단체 도서관 소장 지역자료	기타
현황	14	13	14	1	2	10	4	0
비율	93.3	86.7	93.3	6.7	13.3	66.7	26.7	0.0

첫째, 광역대표도서관은 법적 근거와 납본 의존 중심으로 지역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모든 광역대표도서관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지역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대부분 납본(자료 제출)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납본 협조가 부족해 효율적인 자료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납본의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자료 수집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주요 수집 대상은 단행본과 역사 및 지역학 자료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자료 수집이 미흡하다. 이는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기록물과 비도서 자료에 대한 수집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지역자료 서비스 제공 방식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광역대표도서관이 오프라인 대출 및 열람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온라인 자료 지원과 큐레이션 서비스는 일부 도서관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역자료 서비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자료 발행 기관과의 협업 및 온라인 자료 수집 서비스 지킴 마련 등의 추진이 시급하며,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자료 서비스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지역자료 서비스를 위한 전담사서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었으며, 단일 업무를 맡는 전담사서가 적합한 운영 형태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지역자료 수집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예산과 인력 부족이 큰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추

가적인 예산 지원과 인력 증대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은 오랫동안 해당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 등과 관련한 향토자료 중심의 지역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근래 들어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정 또는 설립되면서 ‘지역학’이라는 특성화 주제를 설정하고 포괄적인 지역자료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자료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17개 광역대표도서관과 협력하여 국가 단위의 지역자료 수집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광역대표도서관에서는 아직 지역자료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도서관 장서로서 정책적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장서개발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장서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지역자료 장서개발 관련 법제적 고찰 및 사례 조사,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개발 현황·지역자료 서비스·담당자 인식도 등을 조사하여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장서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역자료의 장서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및 납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도서관법』 제26조는 광역대표도서관이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지역자료를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자료 납본에 대한 협조 부족으로 효율적인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며, 납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역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자료 제출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출 의무에 대한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자료에 대한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서관발정책 성문화와 관련 규정을 통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Open Access(OA) 리포지터리 구축을 통한 지역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및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도서관은 OAK 리포지터리를 운영하여 서울시 발간 자료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밭도서관은 디지털 아카이브 '대대손손'을 통해 대전의 소중한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지역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지역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지역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자료의 보존과 온라인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자료의 범위와 유형의 다양성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광역대표도서관에서의 지역자료는 주로 단행본, 역사 및 문학 자료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자료 수집이 미흡한 상황이다. 지역자료 범위와 유형으로 사진, 영상, 박물관 등과 지역 공동

체 기록물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기억을 더 폭넓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후대에 전승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은 단행본 위주의 수집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기록물과 비도서 자료를 포함하는 등 수집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

넷째, 지역자료 장서관발 및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 부산도서관은 기록연구사를 포함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부산학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자료 보존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광역대표도서관은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광역대표도서관 지역자료 담당자들의 전담 인력 필요성 조사에서도 8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지역자료 장서관발을 위한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안정적 자료 수집과 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역자료 수집과 관리를 전담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자료 수집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역자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시간 도서관은 지역 역사 자료 출판 가이드 및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 역사 보존에 기여하고 있으며, 밴쿠버 공공도서관도 지역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광역대표도서관 지역자료 담당자들의 지역자료 서비스 제고 방안 조사에서도 1순위가 지역자료의 '수집확충'으로 응답되었다. 이에 지역자료 수집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과 광역대표도서관 간의 지역자료수집협의회 외에 실제적인 지역자료

수집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자료 수집과 공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역 고

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참 고 문 헌

- 곽승진, 오상희, 노영희, 박우정, 김정택 (2021). 세종시립도서관의 장서개발방향 수립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2(1), 259-283. <https://doi.org/10.16881/jss.2021.01.32.1.259>
-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출처: <https://www.clip.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8&boardNo=1754&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1>
-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2024. 11. 4).
출처: <https://www.nl.go.kr/NL/contents/N50604000000.do?schM=view&id=48118&schBcid=photo0101>
- 김덕목 (2016). 마을기록물의 수집과 활용. 기록학연구, 49, 299-325.
- 김보일, 김명수, 안창호 (2015). 공공도서관의 지역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109-137. <https://doi.org/10.16981/kliss.46.4.201512.109>
- 노영희, 유소영, 김정택, 곽승진 (2017). 충남대표도서관의 장서구성 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8(1), 235-264. <https://doi.org/10.16881/jss.2017.01.28.1.235>
- 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 박성우 (2023). 광주대표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자원 인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3), 205-225. <http://doi.org/10.14699/kbiblia.2023.34.3.205>
- 부산도서관 누리집 (2024. 10. 31). 출처: <https://library.busan.go.kr/busanlibrary/index.do#null>
- 서울도서관 OAK 리포지터리 누리집 (2024. 10. 31). 출처: <http://lib.seoul.go.kr/oak>
- 윤희윤, 오선경 (2021). 경북도서관 특화장서 개발 전략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1), 143-168. <https://doi.org/10.3743/KOSIM.2021.38.1.143>
- 이은주 (2018). 공공도서관 지역정보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 지역대표도서관의 온라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383-406. <http://doi.org/10.16981/kliss.49.3.201809.383>
- 장덕현 (2020). 공공도서관 지역특성화장서 구축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333-349. <http://doi.org/10.16981/kliss.51.4.202012.333>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ISP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 전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통계청 (202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출처: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7&act=view&list_no=428476&tag=&nPage=4&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232,233,234,12029,10920,11469,11470,11817,236,237,11471,238,240,241,11865,243,244,11893,11898,12031,11825,246&keyField=T&keyWord=&bodo_b_type=all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편 (2010). (개정판)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밭도서관 누리집 (2024. 10. 31). 출처: <https://www.daejeon.go.kr/>

Library of Michigan Homepage (2024. 11. 3). Available:

<https://www.michigan.gov/libraryofmichigan/public/michigan/local-collections>

Vancouver Public Library Homepage (2024. 11. 3). Available: <https://localhistory.vpl.ca/>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Busan Metropolitan Library Homepage (2024, October 31). Available:

<https://library.busan.go.kr/busanlibrary/index.do#null>

Chang, Durk-Hyun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llection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333-349.

<http://doi.org/10.16981/kliss.51.4.202012.333>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24). Fourth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2024-2028). Available:

<https://www.clip.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8&boardNo=1754&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1>

Daejeon Hanbat Library Homepage (2024, October 31). Available: <https://www.daejeon.go.kr/>

Jeonju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 (2023). Establishment of ISP and Comprehensive Operation Plan for Representative Library in Jeollabuk-do. Jeonju: Jeonju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Kim, Boil, Kim, Myoung-Su, & Ahn, Chang-Ho (2015). A study on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 activation solution of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 Science Society, 46(4), 109-137. <https://doi.org/10.16981/kliss.46.4.201512.109>
- Kim, Duk-Muk (2016). Collecting and using mail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9, 299-325.
- Korean Library Association Literature Informatics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2010). (Revised Edition) *Terminology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Kwak, Seung-Jin, Oh, Sang-Hee, Noh, Young-Hee, Kwak-Woo-Jung, & Kim, Jeong-Taek (2021). Th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direction sejong city library. *Journal of Social Science*, 32(1), 259-283. <https://doi.org/10.16881/jss.2021.01.32.1.259>
- Lee, Eun-Ju (2018). Current status of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n public libraries: the case of online service of regional centra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383-406. <http://doi.org/10.16981/kliss.49.3.201809.383>
- Libraries Act. Act No. 19592.
- National Library of Korea Homepage (2024, November 4). Available: <https://www.nl.go.kr/NL/contents/N50604000000.do?schM=view&id=48118&schBcid=photo0101>
- Noh, Young-Hee, Yoo, So-Young, Kim, Jeong-Taek, & Kwak, Seung-Jin (2017). A study on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measure for Chungnam representative library. *Journal of Social Science*, 28(1), 235-264. <https://doi.org/10.16881/jss.2017.01.28.1.235>
- Park, Seong-Woo (2023). A study on information resources recognition for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Gwangju representative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olog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3), 205-225. <http://doi.org/10.14699/kbiblia.2023.34.3.205>
- Seoul Library OAK Repository Homepage (2024, 10. 31). Available: <http://lib.seoul.go.kr/oak>
- Statistics Korea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2024, January 4).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2022~2072. Available: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7&act=view&list_no=428476&tag=&nPage=4&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232,233,234,12029,10920,11469,11470,11817,236,237,11471,238,240,241,11865,243,244,11893,11898,12031,11825,246&keyField=T&keyWord=&bodo_b_type=all
- Yoon, Hee-Yoon & Oh, Seon-Kyung (2021). A study on the strategy for developing specialized collections of Gyeongbuk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1), 143-168. <https://doi.org/10.3743/KOSIM.2021.38.1.143>